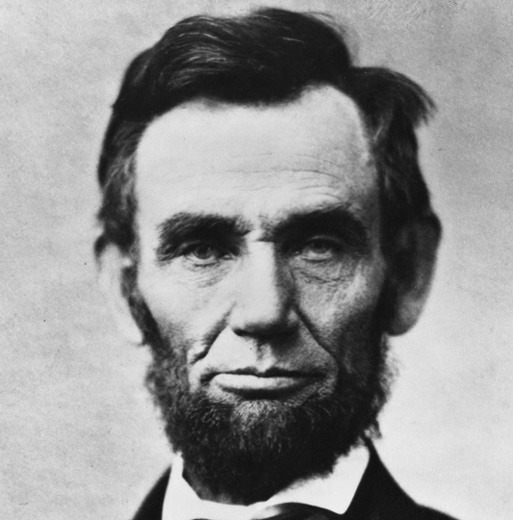
**암살되기 전 링컨 대롱령이 꾼 꿈**

****

† 암살되기 전 링컨 대롱령이 꾼 꿈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하루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워드 힐 라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게.”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지. 그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구약성경에는 16장, 신약성경에는 5~6장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옛날에 하느님과 천사들은

사람들이 잘 때 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곤 했지.

요즘에야 꿈이 아주 우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말이야.

사랑에 빠진 청춘남녀들이나 할머니들이나 꿈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자 그 옆에 듣고 있던 그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꿈을 믿나요? 너무 심각해 보여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꿈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꾼 꿈이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힌다오.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성경을 펴보니까 희한하게도

창세기 28장에 기록돼 있는 야곱의 꿈 이야기가 나왔소.

다른 곳도 펴봤지만 볼 때마다 꿈이나 환상에 관한 구절을 본 것 같았소.”

그가 너무 심각하게 말하자 그의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에게 겁주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꿈인데 그래요?”

그의 부인도, 그의 친구 라몬도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운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일 전쯤에 나는 아주 늦게 침실에 들어갔지.

전방에서 올라온 중요한 전문을 기다리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어.

그리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었어.

나는 곧 꿈을 꾸었지.

내 주위에는 죽음과 같은 적막이 감도는 것 같았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참으려고 애쓰는 흐느낌이 들렸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지.

거기서도 슬픈 흐느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조문객은 보이지 않았어.

여기저기를 가봤는데 산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지나칠 때마다 슬픈 소리가 나를 맞이했어.

나는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계속 가다가 이스트 룸에 도착했어.

나는 거기서 아주 소름끼치는 것을 보았어.

내 앞에는 수의로 싼 시체가 있었어.

그 주위에는 호위병들이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모여 있었지.

어떤 사람들은 슬픈 눈초리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었어.

나는 한 호위병에게 물었어.

‘백악관에서 누가 죽었소?’

그가 대답했어. ‘대통령입니다. 암살당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큰 소리로 울었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네.

그날 밤에 나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어.

비록 그것이 꿈이라지만 지금까지 나는 마음이 편치 않다네.”

그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 꿈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무서워요.

나는 꿈을 믿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꿈에 불과해. 여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잊어버리도록 합시다.

주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좋은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시겠지요.

주님은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니까.”

그의 친구 라몬은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곧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얼마 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그는 자신의 일기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가 암살되기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이다.

그에게 있어 그 꿈은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었다.

그는 그 꿈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그는 그 꿈을 비밀로 해둘 수 없었던 것 같다.”

어떻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꾼 꿈은 운명적인 것이었을까요.

암살되는 꿈을 꾸었으니 그 꿈대로 암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정말 그의 말대로 주님은 그가 암살당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만일 그나 그의 부인이나 그의 친구가 그 꿈을 경고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각성하여

특별기도와 함께 적절한 경호조치를 취했다면 암살을 모면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주님은 꿈을 통해 그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신 게 아닐까요.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꿈 이야기가 나온 것만 봐도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의 부인도, 그의 친구도 그 꿈을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주 허술한 경호 때문에 암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려고 꿈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으로 인한 일부 부작용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꿈 자체를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욥33-14-18)

ps: 오늘 아침 나가다 보니 일부 투명한 편지함에 오래 전부터 보이든 광고 휴지가 보여

들여다보니 밑에 얇고 작은 책자가 보인다.

손을 넣어 꺼내보니 비에 젖었고 넣은 지 오래 된 것 같다.

어느 교회에서 홍보용으로 넣은 것 같다.

가면서 넘기다보니 원문이 있어 대충보니 흥미있는 내용이다.

접어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차근히 보았다.

평소 링컨을 존경했고

책점에 들렸다가 그 사생활에 관한 "링컨 대통령"이란 책이 눈에 띠어

읽고 줄거리를 대충 써서 올렸던 적도 있다.

책자을 펴놓고 자판을 두드리며 1/3쯤 치다보니

혹시나 검색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제목을 검색해 보니

단 한군데에 원문이 올라와있어 복사해 옮겨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무시하면 않된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과 경고가 되는 말씀이다.

나도 더러

음성, 꿈, 이상등으로 경고도 하시고

말씀으로만은 다 풀어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전해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보통 영으로 영에게 깨달음과 계시를 주시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나는 그것을 비상채널이라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급하고 필요한 것을 비상채널을 통해

예시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며 교훈 하시기도 한다.

이런 비상채널을 통해 오는 것은

링컨이 본 바와 같이 아주 선명하고 꿈을 깨고도 잊혀지지 않는다.

소위 개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안다.

링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은 경히 여겼던 것 같다.

잠에서 깰 무렵은 낮의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청소되고

그런 반 무의식상태는 모든 잡념이 사라진 빈 그릇이요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텔레파시로 전달하기에 좋은 상태인가 보다.

절망을 이긴 사람, 링컨

가장 큰 가난과 죽음과 사랑의 아픔과 불행한 결혼 생활,

패배의 절망과 갈등의 슬픔을 견디면서

정직한 양심과 따스한 긍휼과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으며

최악의 환경에서 스스로 찾아 배우며 가장 험한 광야를 걸어간 눈물의 사람

가장 비천한 태생과 환경을 이기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오르며 위대한 업적과 불멸의 글을 남긴...

가장 많은 미움과 욕과 조롱을 받았으나

또한 가장 많은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든 영혼

나는 이 사람의 전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이며, 주님의 위로이며,

한 영혼이 걸어간 일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증이며

이러한 길을 간 모든 순례자의 간증이라 믿는다.

아브라한 링컨

나는 아브라함 링컨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그의 일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간증이라 믿는다.

주님은 인성을 입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으로써

이 길을 가셨지만

아브라함 링컨 그는

땅에서 태어나 이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함을 입었다.

나도 종종

나의 가는 길을 알 수 없었다.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는 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신다.

하나님만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태어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운명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다.

그 계획은 토기장이의 마음 안에 있으며

손수 빚으시며

그 안에 자신의 손길로 조각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자신의 모습과 영광을 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 완성에 이르기 까지

누구도 그 계획을 이해 할 수 없다.

다만 어렴푸시나마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이다.

그가 완성되는 말에야

모든 계획을 다 이루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그 무렵에야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간증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획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나는 이 전기를 읽으며

나에게 닥아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며 계획으로 감사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낀다.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롬0828.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저 그렇다고 인정하든 그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링컨의 일생은 이를 간증하고 있다.

또

자신을 부인하고 선한 소망을 가지며

믿는 사랑의 실천 소경이 되어 그 외동딸로 받아쓰게 하여 이룬

"실락원"에서 밀턴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순종이 최선임을 알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잠시 눈에 보이는 육신과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 몸을 위해 영원을 보며 경영하신다.

우리는 다 이해 할 수 없고 다 받아드릴 수 없을 지라도

말씀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며 사랑으로 순종해야 한다.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신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려야 한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교회를 위하시느니라"

믿는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이런 간증을 가진다.

"두려워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 하심이라"

링컨이 남부군의 항복을 받은지 이틀 만에 총에 맞아

9시간의 사투 끝에 죽은 것도 주님의 계획이었다.

그의 죽음까지도 그 일생의 순국과 순교의 영광이었으며 꽃이었다.

가장 많은 조소와 미움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적을 용서하는 데 가장 관용했든 한 영혼

그는 삶으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닮아갔다.

죽어서 더 사랑을 받은 사람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친구였으며

노예들의 아픔을 간직했든 사람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귀 기울리던 주님의 친구

남부군의 항복을 받은지 이틀 뒤에 포드극장에서 총에 맞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오전7시가 지나자 링컨의 신음이 잦아 들었고

더 이상 숨 속리도 들리지 않았다.

링컨의 죽음을 지켜보던 한 보좌관은

'형용할 수 없는 그윽한 평화의 표정이 여윈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했다"

그가 죽은 포드극장에서

그는 아내에게

" 성지 순례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가신 길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짧은 전기를 읽으며

아주 많은 간증과 교훈을 보았고 나눴다.

나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사원에서 연설하려고 할 때

한 상원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천한 가계를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

그가 한 말을 읽기 전에도 링컨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의 취임식장에서의 그 일을 읽은 후에는 링컨을 깊이 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전기를 읽은 후에는

링컨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링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주님을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수 없는 것 처럼....

PS:

[링컨 당신을 존경합니다]

데일 카네기 지음

나는 이책의 내용중 일부를 발취하여 간추려 볼까 시도하다.포기했다.

이 책도 간추려 놓은 책이기에.... 불가능 했습니다.(223페이지)

몇군데만 발췌해 보면....

9세에

"남매에게 사이좋게 지내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훌륭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신 어머니의 죽음,

남북전쟁 중에 사랑하는 아들 월리의 죽음,

착하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첫사랑 여인의 죽음을 홀로 지켜보며 보낸 마지막 밤,

운명의 만남과 결혼

"메리토드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사랑을 페풀었든 남편과 25년 동안 한 지붕 밑에서 살았지만

그런 남편에게서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고, 예전의 좋지 않은 버릇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링컨이 앤과 결혼했드라면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리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누구보다 가장 불행했든 결혼 생활

그것이 그를 관용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

"4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부인들에 대한 링컨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자신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시요

그들은 단지 우리가 처했을 지도 모를, 그런 처지에 있을 뿐입니다.'

"그의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귀에는 과부들과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항상 들렸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며 탄원하는 어머니들, 애인들, 아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사형선고를 받은 남자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 그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링컨은 몸을 이르키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었고 피곤했만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해결해 주었다.

그는 여자의 우는 모습을 안스러워 했고 특히 아이를 안고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견디지 못했다.

"링컨이 서거한뒤 5주동안 메리 토드는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때 줄곧 옆에서 그녀를 돌봤든 엘리자베스 케클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는 그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듯한 울부짖음,

이 세상 사람의 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온 몸에 소름이 돋게하는 발작,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섭게 터져 나오는

슬픔 같은 거요"

자녀들과 함께 놀며 혼내지 않고 너무 관용했든 링컨

한 밤중에 태드는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어요

태드는 흰 잠옷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우시면 제 마음도 아파요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분병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월리 형이 같이 계실테니까요.

울지 마세요. 엄마! 안그러면 저도 같이 울겠어요"

"인고의 세원을 이기고 견뎌온 슬픔의 사람

그가 즐겨 읊든 포우의 "애너벨 리"

"달만 뜨면 언제나 찾아드는

어여쁜 애너벨 리의 꿈

별만 뜨면 언제나 눈에 선한

애너벨 리의 빛나는 눈동자"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 어찌 이리도 당당한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유성처럼,

재빨리 흘러가는 구름처럼,

번쩍이는 번개처럼,

부서지는 파도처럼,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서 편히 쉬고 있구나"

"그녀의 순교자들이 묻혀 있는 곳의 풀은 푸르기도 하구나

수의도 입지않고 묘비도 없이 그들은 편안히 묻혀 있구나"

\*\*\*\*\*\*\*\*\*

대통령 첫당단 취임식장에서 있었든 일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로 신발 만드는 일을 하였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상원의원들은 신발제조공 집안 출신에다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한 링컨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불쾌하지 않았던 것이다.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어 많은 상원의원 앞에서 취임연설을 하게 되었다.

링컨이 단 앞에 서서 막 입을 열려 할 때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

링컨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이 신발도 바로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오'

그런후 그는 자기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 나왔다.

링컨은 조용히 서 있었다.

키가 훤칠한 링컨의 몸집은 조금도 흔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링컨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엔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 하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요.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애 조금은 손봐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 고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이상은 옮겨온 글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것으로 안다.

그의 노예 해방은 기독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

남북전쟁을 기도와 그 응답으로 승리로 일끌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다.

그가 오랜시간 기도하고 나왔을 때

참모가 전선의 상황을 보고하면 대통령은 어쩐일인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일화들도 있다.

링컨의 진실. 그의 겸손. 그의 눈물. 그의 솔직함 .그의 확신

이는 그 안에 계셨든 주님이셨다.

이러한 주님의 향기와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때 신뢰하고 그 말을 믿는다.

이 글을 옮기기 위해 이 글을 쓰는 동안

왜 목이 메이고 눈물이 감돌까?

링컨이 그 말할 때 그 안에 계셨든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영혼에 전달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님도

"그 아버지는 목수요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깊이 알아 보기도 전에

문벌과 학벌 등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낮아지고 진실한 눈물이 있는

가난한 심령들 속에 내주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후5:16)

\*\*\*\*\*\*\*\*\*\*\*\*

대통령 재단선 취임식장에서의 연설

2달후 이 연설은 스프링 필드 링컨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읽혀졌다.

"우리가 간절히 희망하는 것은 하늘의 무서운 응징인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50년간 노예들의 무보수 노동의 대가로 축적된 모든 부가

없어질 때까지,

채칙질에 흘린 모든 핏방울이 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피흘림을 지불하게 될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천 년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참되고 정의 롭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말고,

모든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기 위해......,

우리들 사이의,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 매진합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